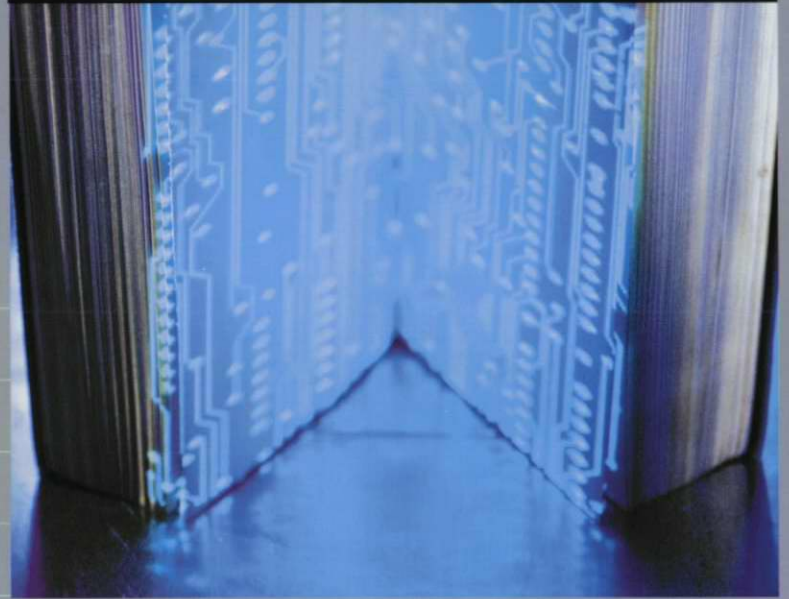


# e-Book 솔루션의 핵심 'Quark Xpress와의 호환성'

PDF • 하이북 등 호환 가능 ... 국내시장 올해 400억원 규모 전망

글 / 위즈북 이인철 부사장(nood@wizbook.co.kr)



전자책이란 도서로 간행됐거나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전자 기록매체 · 저장장치에 수록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도서를 총칭한다.

이렇게 볼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한글 문서나 워드로 만들어 개인 PDA에서 읽는 것도

전자책의 형태일 수 있으며,

한국전자책이 판매하는 하이북 단말기에서 'YBM 시사영어사'의

토익을 보고 MP3로 들을 수 있어도 전자책이다.

이렇듯 큰 의미로는 저작물이 도서로 발간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모든 것을 전자책이라 할 수 있지만 본 지면에서는

국, 내외 상업화된 유료 전자책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자책에 활용되는 솔루션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국내 유료 전자책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전자책 솔루션은 크게 다음과 같다.

##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은 HTM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W3C에서 정의한 표준으로 HTML의 문제점을 해결한 언어이다. 즉 XML은 HTML과 달리 개발자가 필요시 문서의 논리구조를 정의할 수 있으며, 내용과 스타일이 분리돼 있어서 문서의 재 사용성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전자책 표준에서도 문서 포맷으로 XML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OEB PS와 일본의 JepaX, 한국의 EBKS 1.0과 같은 표준들은 XML 기반의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다.

## PDF(Portable Document Format)

어도비(Adobe)사에서 개발한 PS 기반의 포맷으로 페이지 단위의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비트맵(Bitmap)과 벡터(Vector) 그래픽을 지원하며, 사운드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표현 기능이 뛰어나다. PDF는 어도비사의 독자적인 포맷이지만 완벽한 레이아웃 유지와 우수한 포맷팅 기능 때문에 출력 위주의 전자문서 분야에서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도비사의 독자적인 포맷으로 애크로벳 리더(Acrobat Resder)가 거의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능을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재 사용성을 지원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구조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 Flash / Shockwave

플래시(Flash)는 매크로미디어(Macromedia)사의 멀티미디어 웹 저작도구로 일반적으로 낮은 전송속도 때문에 멀티미디어 매체의 전면적인 수용이 어려웠던 기존의 웹 환경에서 플래시는 작고, 빠르고, 강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파일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역동적인 애니메이션과 사용자의 상호작용, 환상적인 사운드 효과가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때문에 아동용 전자책의 경우 상당부분 플래시를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

## Djvu (데자뷰)

DjVu는 PDF같은 이미지 포맷에 비해 파일 사이즈가 월등히 작고, 다운로드 시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한, 영어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며 하이퍼링크 기능도 제공해 단순 이미지가 아닌 복합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다.

현재 서울 대학교 고문서 도서관에서는 기존의 PDF보다 데

자뷰를 이용해 이미지 중심의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자책 솔루션으로는 위즈북이 자체 리더를 개발해 데자뷰를 이용한 전자책을 최초로 제작 공급하고 있다.

## 익스프레스와의 호환성이 핵심

e-Book 제작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기능은 오프라인으로 제작된 도서(종이책)를 디지털화시키는 기능이다. 일반 도서를 e-Book으로 제작하려면 우선 일반 도서의 제작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도서는 매킨토시(Macintosh)란 기종으로 QuarkXpress라는 프로그램으로 도서를 편집하고 출력한다. 즉 대부분의 도서가 Quark 데이터로 만들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수만권의 일반도서를 e-Book으로 만들려면 Quark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분명 효과적이다.

## e-Book Converter Program Core

- 일반 도서의 본 데이터인 Quark 파일을 IBM환경으로 전환하는 기능
  - 간편한 입력 및 컨버팅 기능
  - 본 도서의 품질을 유지 또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능
  - Web 이나 PDA에서 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화 가능한 기능
- 특히 첫 번째 항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

## Quark to the e-Book !!!

Quark에서 직접 e-Book으로 컨버팅할 수 없다면, e-Book 프로그램으로 값어치가 없으며 또한 많은 제작 가공비가 들기 때문에 상업화 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 또는 우수한 S/I업체에서 만든 e-Book 솔루션이 있지만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도비사가 만든 PDF와 한국전자북이 만든 XML 형태의 하이북 정도다.

Quark to the PDF = 어도비사가 만든 e-Book

Quark to the XML = 한국전자북이 만든 e-Book

그러면 우수한 업체에서 Quark to the e-Book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Quark을 개발한 QuarkXpress사와 소스를 공개하고 같이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Quark사가 소스를 공개한 전자책 회사는 어도비와 한

국전자북이 유일하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 20개 전자책 업체 중에 19개 업체가 한국전자북의 하이북 솔루션을 사용하며, 미국에서 역시 20개 업체 중에 15개 업체가 하이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 1999년 e-Book Open  
한국전자북 | XML e-Book을 자체 개발하고, 11월경에는 Quark사와 계약해 Quark 컨버팅 e-Book 개발 바로북 | Probook 2.05를 자체 개발했으나 자체 프로그램은 포기하고 한국전자북의 솔루션을 구매해 도입했음.  
북토피아 | 오픈 당시부터 한국전자북 솔루션 구매 도입
- 2000년 e-Book Open  
와이즈북 | 자체 XML e-Book 개발  
드림북 | PDF e-Book 도입
- 2001년 e-Book Site Open(현재)  
중소형 e-Book 회사 다수 오픈

### EBKS 중심으로 표준화 진행중

도서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맷을 사용하는 전자책 문서 표준을 미국, 일본, 한국 등은 기본적으로 XML을 기반으로 각국의 환경에 맞는 전자책 표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EBKS를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은 OEB PS(Open ebook Publication Standards and Technology), 일본은 JEPA(Japanese Electronic Publishing Association)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협회가 결성됐다.

하지만 위의 3개국에서 정의한 전자책 표준도 각 국가마다 정의한 방식이 달라서 전자책 교환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자책을 교환하려면 각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서의 논리적인 구조를 고려한 변환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선 논문 '전자책 표준간의 콘텐츠 변환에 관한 연구(저자 : 고승규, 손원성, 임순범, 최윤철)'에 자세히 나와있다.

앞으로 전자책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입과 휴대가 간편하며, 영구성이 있고 환경친화적이다 (펄프사용을 안 한다).
-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연출 때문에 여러 표현이 가능하며 복잡성 표현이 가능하다.
- 읽는 책의 한계를 극복해 교육소외자(맹인, 장애인)에 동

일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파일 형태로 보관하기 때문에 운송이 용이하고 항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 인쇄, 물류비, 보관비 등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장소 및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고 독서를 할 수 있다.
- 쉬운 출판 여건으로 창작 문화의 환경이 조성된다.
- 서점 및 출판사는 제고, 절판, 반품에 따른 부담이 없다.
- 지식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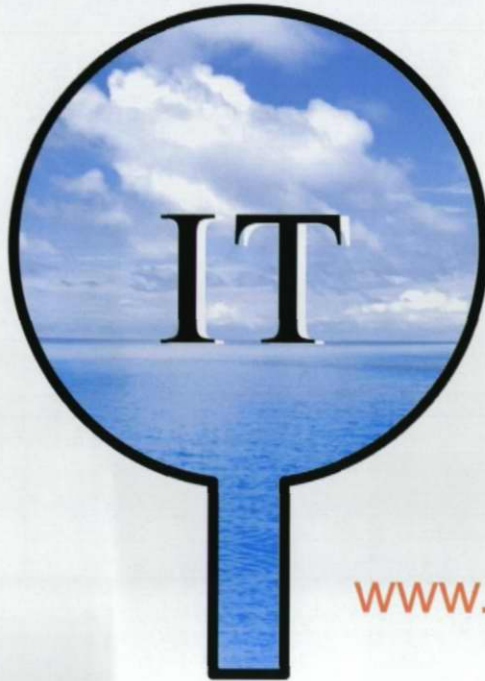
### 국내시장 올해 400억원대로 급성장 전망

전자책은 이런 장점으로 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며, 실제로 앤더슨 컨설팅사에서는 2005년 세계시장 규모가 23억달러에 이르고, 미국 시장은 2004년 4억 1,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국내 유료 전자책 업체들도 2002년 전자책 도서관 사업을 촉매제로 W업체는 40억원, B업체는 20억원, D업체는 10억원 등 지난해에 약 120억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두 배 이상 증가한 400억원 시장을 향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올 여름이 지나면서 그 동안 침체됐던 BtoC 사이트에서도 약 50% 증가세를 나타내며 밝은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 '정보처리학회지' 7권에 실렸던 예인정보 대표 조기원님의 글을 인용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려 우왕 3년(1377년) 7월 청주의 흥덕사에서 상, 하권으로 간행된 불서(佛書)를 우리는 알고 있다. ‘직시심체요절’이라는 불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훌륭한 문화 유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출판 문화 역사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전 세계를 선도해 왔고, 찬란한 이 유산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선조의 유산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선조는 이를 세계 산업화에 실패했지만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출판 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우리는 그 동안 축적한 IT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직시심체요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식 정보화 공유라는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도 기업도 이 매력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



[www.metadb.net](http://www.metadb.net)

2003년 9월 1일  
IT전문검색사이트 MetaDB가 IT전문 가이드  
네트워크(IT Guide Network)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내 최고의 IT전문 검색서비스를 제공해왔던 MetaDB가  
웹사이트 개편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보통신부 국책사업으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MetaDB는 이번 개편으로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하였고, 각 분야 우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IT콘텐츠를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홍보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홍보관>을 신설하여  
국내 IT업체의 마케팅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우수 IT기업 홍보를 위해 마련된 MetaDB의 기업홍보관을  
통해 귀사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IG**  
event

- 2003년 9월 1일 달라진 MetaDB와 함께 꾸밈한 이벤트  
선물도 드립니다. 상품품목은 사정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상품품목: 노트북, PDA, PS2, MP3, 헤드셋, 화상캠 등)

